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9. 22.(화) 10시

“동포와 국민이 함께 즐기는 가을 밤”...‘2026 코리안 페스티벌’ 열린다

- 9월 29일 송도 센트럴파크서 개최...국민 누구나 무료 관람
- 재외동포 예술인 4팀 한 무대에...가수 산다라박, 거미도 함께
- 가야금·클래식·K팝·재즈로 만나는 세계 한인의 다양한 음악

【관련 국정과제】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

-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예술인과 국민이 음악으로 만나는 가을밤 축제가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9월 29일(화) 오후 7시 30분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재외동포와 국민이 함께 즐기는 「2026 코리안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 올해는 세계한인주간을 맞아 재외동포와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야외 공연으로 진행한다. 세계 각지에서 살아온 동포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나고, 동포와 국민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자리로 꾸민다.
 - 코리안 페스티벌은 재외동포와 국민이 문화예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 무대에는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재외동포 예술인 4팀이 오른다.
 - 재외동포 3세 가야금 연주자 박순아,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서울 시향에서 활동하는 고려인 5세대 비올리스트 안톤 강, 파라과이 출신 한인 2세로 K팝과 라틴 음악을 접목한 가수 Jae Cho, 재즈 장르로 한국의 소리와 서사를 풀어내는 유럽·미국 출신 동포 4인조 재즈밴드 이(耳)끌림이 차례로 공연한다. 진행은 OBS 아나운서 최지해가 맡는다.

- 특히 안톤 강은 독립유공자인 유상돈 선생*의 후손이다. 러시아에서 성장한 뒤 한국으로 활동무대를 옮겨 클래식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다.

* 유상돈 선생(1874~미상): 일제강점기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하여 권업회, 대한노인동맹단 등을 거치며 활동한 독립운동가, 2011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 마지막 순서에는 가수 거미와 재외동포청 홍보대사인 산다라박이 무대에 올라 동포와 국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밤을 마무리한다.

□ 공연장에는 약 1,000석 규모의 야외 관람석이 마련되며, 재외동포와 국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행사장에서는 관람객들에게 간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푸드트럭도 운영한다. 또 동포와 국민이 서로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전광판으로 보여주는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 재외동포청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사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관람객에게는 1만원 상당의 「인천사랑 상품권」을 제공한다.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와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직접 만나 함께 즐기는 것”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살아온 재외동포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나고, 동포와 국민이 한층 가까워지는 가을밤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동포교육문화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희경 (032-585-3207)
		담당자	서기관	김영수 (032-585-3209)